

지역 소식통

고창군, 내년부터 청소년 문화센터 전면 무료입장

고창군이 내년부터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고창군실내체육관 옆)'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무료개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문화센터는 개관 당시(2013년 9월) 쾌적한 시설 유지를 위해 유료가 바람직하다는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1일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다.

청소년문화센터는 고창군이 설치하고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대표 김선태)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펌프, 에어하키 등 14대의 게임기기와, 당구장과 포켓볼장, 노래방, 이벤트실, 마루마루실, 보드게임장 등을 갖추고 연간 약 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1억2100여만원 지급

정읍시는 올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총 2,048마리를 포획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과 더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침입을 차단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라니 1,626마리, 멧돼지 422마리를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190명에게 1억2,1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농가 52명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도에도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7일 2024년 상반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선발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3명을 대상으로 시와 정읍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5426억 확보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주요 현안사업 대거 반영

부안군은 최근 국회 의결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국·도비) 5,426억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며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구 의원과 국회의원 및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안구백·이재호·이상현·김운덕·소병훈·안호영·유동수·허영·김교홍·김민기·박정·서병수 국회의원 등 주요사업별 상임위 소속의원들과 소통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2024년 국가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5억원(총사업비 198억원),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10억원(총사업비 400억원), 고압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 10억원(총사업비 110억원), 격포항 여객선 정박용 부잔교 설치 10억원(총사업비 30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의 경우 시작연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적지만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가 보장되어 지역 현안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 확보한 국가예산 사업들도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5억원(총사업비 192억원),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5억원(총사업비 170억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의 혁명 전당 건립 사업 2억5,000만원(총사업비 206억원), 위도항 국가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76억8,000만원(총사업비 400억원) 등이 반영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권익현 군수는 "국·도비 예산 확보는 부안 대도시 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적극 개발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조감도 (사진=고창군청 제공)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 본격

18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내년 3월 중 LH와 공동사업 협약 예정

고창군은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2023년 부지매입과 사업계획변경을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최근 총사업비는 1,777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42억, 매칭군비 125억원, 기금 200억원, 공공투자 1160억원)으로 변경·확정됐다.

터미널 뒤편 상가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부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보완하여 부지활용도 높여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넓어진 사업부지에는 교통시설과 공동주택을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통합건축 하게된다. 저층부는 터미널과 청년창업공간, 유기농연구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고, 5층부터 18층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축한다. 또한 현재 터미널 옆 주차장 부지에는 지상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지어 터미널과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원활하게 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빠르면 2024년 3월 중에 LH와 공동사업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동사업 협약이 이루어지면 공동주택 사업부분에 대한 재정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업이 분개도에 올라 본격 추진될 것이며,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고창터미널은 상주인구 400명, 일일 시설이용자 2,000명 등 고창군의 중심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 지역활력센터 위탁 운영 MOU

지역 발전, 지역활력 증진 도모

정읍시는 최근 사단법인 정읍시 지역활성화센터와 지역활력센터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활성화센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활력센터의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앞서 시는 농촌과 도시재생 정책사업을 연계해 복잡다양한 행정상 욕구에 체계적으로 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리 운영 중이던 공동체활성화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역활력센터로 통합했다. 이후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역활성화센터를 위탁 운영단체로 결정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활성화센터와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 위기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



정읍시는 최근 사단법인 정읍시 지역활성화센터와 지역활력센터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활성화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및 농촌활력 사업 지원, 주민역량강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전문 단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 협력기관 선정

부안군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3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부안군은 2009년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

정하여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장애인 세대이며, 읍 한해 월평균

800세대에게 총 65백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세대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 식미 평가회 가져

정읍시는 지난 20일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벼 품종개발(SPP) 사업 1년차' 식미평가회를 가졌다.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 사업은 품종개발 주체인 농촌진흥청과 수요자인 지자체, 농업인, RPC 등 소비자가 참여해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해 품종으로 등록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로 한다.

올해는 예비품종 5개(전주 677, 전주 678, 전주 681, 전주 684, 전주 687)에 대한 실증 시험재배 1년차를 마친 후 이삭수, 알수, 수량, 도정율 등 품종특성을 조사했다. 이후 현장평가회를 통해 3개 예비품종을 선택하고, 비교 품종인 신동진, 인평벼, 새청무벼와 선호



도 조사를 위해 식미평가를 추진했다. 이날 평가회는 사업참여 농가와 재종단지 회원, 농협RPC 담당자와 개인 RPC 대표, 농정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밥 모양, 밥새, 질감, 맛 등 항목과 종합적인 선호도를 평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